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 관련 부.울.경 경제계 공동 환영 성명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의결되어 2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된 것에 대해 부.울.경 경제계는 800만 지역주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특히 법안심사 과정에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 원활한 합의를 보여준 여.야 국회의원님들과 힘들게만 느껴졌던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오늘에 이를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부 당국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과거 부.울.경은 입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의 각을 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해 부터 지역 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이러한 갈등을 뒤로하고, 김해신공항 백지화 및 가덕신공항 건설에 한 목소리를 내는 등 부.울.경의 단합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 통과는 동남권 메가시티로 향하는 길에 커다란 결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법 제정 취지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가덕도신공항은 단순히 국제공항 하나 짓는 것을 넘어 부.울.경을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묶고, 국토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낸다는 측면에서 경제사적으로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지역의 이익을 넘어 국가의 번영을 꾀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건설을 위한 다양한 입법 장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요소들이 이번 특별법에 대부분 담겨있어 이제는 부.울.경 경제가 미래를 향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동안 핵심쟁점이었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전 타당성조사의 간소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착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근거조항도 포함되어 부.울.경이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구상해온 공항복합도시를 포함한 입체적인 개발도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가덕도신공항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하였고, 동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인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과 부.울.경의 운영과정 참여기회 보장은 2030년 정상개항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끝으로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규정하고 김해신공항의 폐기를 확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입지논쟁에 대한 종지부와 함께 가덕도신공항 건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여.야의 깊은 입법 배려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정부와 여.야 정치권 그리고 오랜 시간 가덕도신공항에 지지를 보내주신 부.울.경 경제인들과 800만 지역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다만 이번 특별법에서 아쉽게도 빠진 2030부산세계박람회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올해 정부유치단의 공식 발족과 더불어 유치활동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23년 유치 확정 시 반드시 동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추후 공항공사 설립 문제 등 개항 이후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요청합니다.

지역 경제제도 부·울·경의 미래와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디딤돌 삼아 항만-항공으로 이어지는 복합물류산업의 발전과 이에 기반을 둔 첨단산업의 육성 그리고 동남권이 동북아를 대표하는 관광·미스 권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1년 2월 23일

부 산 상 공 회 의 소 회 장 허 용 도
울 산 상 공 회 의 소 회 장 전 영 도
창 원 상 공 회 의 소 회 장 구 자 천